

통일의 의지와 선교

우리의 민족적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통일 문제는 지난 15 선언 이후에 국제 정세의 급변이라는 사실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동안 술렁이던 여론도 차차 잠잠해지고 주위의 변화, 특히 중공과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 예민한 관찰을 하는 것 밖에 별로 이렇다할 문제 제기도 없었다. 자유진영에 있는 여러 나라가 서로 다투어 중공을 승인할 차비를 차리고 있고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차지할 역할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우리의 외교, 군사, 정치면에 어떤 공통된 여론을 집약시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태세를 갖추어야만 할 시기에 도달한 것 같다.

교회의 선교는 이러한 목전의 국난을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개인과 국가를 초월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 그 국가 민족의 운명 속에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 우리 한국의 민족사를 이러한 견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려는 섭리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운명론적인 입장이 아닌 좀더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면 무엇보다도 국가의 통일 문제일 것이다. 이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국제 정세의 고착

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고착 관념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크리스천 생활은 언제나 고착 관념을 부수고 나서는 역동적이며, 정진적인 것이어야 한다. 강대국들의 해결만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응졸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타개해 나갈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를 앞두고 모두 투표에만 집착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누가 선뜻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 주는가? 민족이 한결같이 고대하는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들 남의 얼굴만 쳐다보는 태도만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정말로 민족의 살 길을 보여 주는 일이다. 따뜻한 전도 부흥회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저분한 자기 기만이다. 우리의 선교의 메시지가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선교의 해>라는 구차스러운 행사를 치루려고 하는가?

통일에의 의지! 이것만이 오늘 한국 교회가 집착해야 할 선교의 메시지이어야 한다. 통일에의 의지가 결핍된 모든 설교, 행사, 봉사 활동은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통일에의 의지를 견지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연연히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것이다. 신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끈질긴 통일에의 의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워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서의 메시지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족 통일을 염두에 두고 성서 연구를 다시 해 보자는 말이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

에 뿌리를 박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구태어 토착화니 뭐니 해서 떠들 필요가 없다.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면 그것이 이미 토착화된 메시지이다. 문제는 이 민족의 운명과 어느만큼 우리 자신을 동일화 했느냐 하는데 있다.

토착화를 관념적으로 다루지 말고 실생활을 통해 표현된 문제 속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신학자들, 교역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여! 우리 눈 앞에 닥쳐오는 시련과 문제에 함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설새 없이 우리 사회 안에서 부정 부패를 없이하고 진정한 사회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 공의 위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 이것만이 정말 이것만이 승공의 길이요, 우리의 선교의 지상 과제이다.